



제목	초국가 시대의 미디어의 정치 이데올로기화와 문화적 의미: 이란 사회를 중심으로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한국중동학회 (한국중동학회논총 28-2)
발행일	2008. 3. 1.
저자	구기연
출판국가	대한민국
페이지수	1-22
ISBN 또는 ISSN	1225-8865

#### 내용 요약

‘이란’이라는 국가는 많은 중동, 이슬람 사회에서도 종교적,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는 사회이다. 79년 이슬람 혁명의 성공으로 밖으로는 이슬람 국가라는 새로운 체제로 관 아메리카에 대항할 수 있는 국가로 부상했고, 이슬람 세계 내에서는 이슬람 근본주의라는 기치 아래 종교가 정치적, 국가적 이데올로기로 부상할 수 있는 모델이 된 사회이다. 하지만 현대 이란 사회는 끊임없이 ‘국가’라는 틀과 제도를 벗어나려고 한다. 또한 종교국가를 굴레 속에서 이란 사회 내부에서는 신정정치에 대한 회의와 반성, 개혁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져가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슬람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종교적 이데올로기가 정치화되고, 의례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으며, 아직도 많은 이들이 권력과 보수의 이름으로 체제를 고수해 나가려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 세계화된 미디어는 개혁의 목소리를 국가라는 경계 밖으로 내 보내 주는 통로가 되고, 권위적인 규제 사회에서 ‘대항 담론’을 형성하는 틀을 제공해 준다. 또한 보수와 개혁이라는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이란 사회의 사적 공간에서는 끊임없는 소통과 토론의 장으로 작지만 큰 사회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